

‘올해만 4번째 음주 비위’ 광주경찰 왜 이러나

지난 3일 서부경찰 경감 접촉사고 처리 중 들통 ‘의무 위반 근절’ 기간 중...“감찰 등 백약이 무효”

올 초부터 이어진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등 관련 비위가 벌써 4번째다. 잇따른 비위에 광주경찰은 경찰청 감찰을 받기도,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서기도 했지만 본청에서 발령한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에도 일탈 행위가 발생해 기강 해이 심

각은 물론,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A 경감은 술을 마신 사실이 들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은 관련 내규에 따라 A 경감에 대한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의 음주 비위 적발은 올해 들어 4번째인데, 지난해 1년 동안 총 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3·1절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

독 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소속 C 경위는 2월 2일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음주 사실이 들렸기도 했다. 갑진년(甲辰年) 첫 날 술을 마신 뒤 본인 차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 경위는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담기가 잡혔다. 연초부터 잇따른 광주경찰의 음주 비위에 경찰청은 감찰반을 파견, 북부 실

태 점검과 기강 확립에 나섰다. 광주경찰도 자체적으로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전국에서 잇따른 경찰의 비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오는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기간으로 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윤 청장의 특별경보 발령에 맞춰 광주경찰의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는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당사

자들은 직을 잃는 등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직과 동료 보호 차원에서 경찰청의 특별경보 기간 만큼이라도 음주 금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냈다. 그러나 A 경감이 ‘의무 위반 근절’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음주 비위를 저질러 이 모든 조치를 무색하게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면목이 없고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등하곳길 ‘교통안전지킴이단’ 출범 광주 동구는 4일 청사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곳길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6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킴이는 관내 7개 초등학교 저학년 75명을 대상으로 등하곳길 안전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함께한다. <광주동구 제공>

헬스장 매출 1천여만원 가로챈 매니저 징유

헬스장의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원들의 등록비 등 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

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김해시 소재 한 헬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43회에 걸쳐 헬스장 이용료 등 총 1천270만8천원을 횡령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여수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추락사

여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4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여수시 광무동 한 아파트 신

축 공사 현장에서 A(70대)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경

사로를 내려오다 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청도 경찰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진성 기자

‘매입형 유치원’ 청탁 관련자 전원 ‘징역형’

주범 등 2명 실형...최영환 전 시의원은 별도 재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청탁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주범 격인 유치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6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매입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을 한 또 다른 원장 B(62)씨는 징역 2년·집

행유에 3년, 뇌물을 교부한 유치원 원장 C(55)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와 이를 받은 E(56)씨에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200만원 추징의 형이 각각 내려졌다.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

에게 “선정에 힘써달라”며 6천여만 원을 건네고, E씨에게 사례비 200만 원을 주며 사업 정보를 얻은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공무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7개월여 만에 자수한 뒤 별도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재영 기자

여자친구 살해 해경, 항소심도 ‘징역 25년’

법원, 검사·피고인 측 ‘양형부당’ 쌍방 주장 기각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사고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하기까지 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순경으로 임명되기 전 시보 때인 지난해 8월 15일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살해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최씨는 자신과 닮은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자 뒤쫓아가 교살했다. 범행 후 최씨는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현장을 꾸민 뒤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채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에 대해 최씨와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최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

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했고, 방치하기까지 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안재영 기자

해경, 진도 쉬미항 기름 유출 선박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진도 쉬미항 내에서 기름을 유출한 700 부산 A호 선장(70대)과 선주(5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3시 46분께 진도군 쉬미항에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 긴급 방제 조치를 완료했다. 해경은 목포광역VTS(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통합CCTV관제센터와 공조해 쉬미항 입·출항 및 정박 선박을 조사해 사고 발생 3일 만에 A호를 찾아냈다. /목포=정해선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